

선물 준비 매너

-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! -

2008.02.27

거래처와의 인연을 오래 맺기 위해서는 선물을 적당한 시기에 보내는 것이 좋다. 또한 처음 방문하는 거래처에는 선물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. 여기서는 선물 지참 매너에 대해 소개한다.

□ 적절한 선물 준비

- 방문할 때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한다.
 - 먹을거리, 회사 기념품, 달력(연말일 경우)이 좋다.
- 연말연시 인사 때는 선물을 준비한다.
 - 연말 12월 25일 전후에 거래처를 돌면서 방문을 한다.
 - 연초(2008.1.7이후)에도 똑같이 방문을 한다. 연초 방문해도 부재였을 경우, 명함에 메시지를 남긴다. 「御年賀」「御年始」라고 붉은 색으로 인을 찍어 「年賀のあいさつに参上いたしました」라고 붓필로 적어서 안내데스크에 전달한다.
 - 여름에는 간단한 식료품을 보낸다.
- 처음으로 방문하여 인사할 때는 과자를 선물로 지참한다.
 - 「初めまして、お忙しい時間を割いていただきまして、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」라고 마음을 전한다.
 - 사과와 마음을 전할 때는 위스키, 와인이 좋다.
- 식사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입 스카치, 코냑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.

- 만약 거래처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 선물로 과일이 좋다.
 - 택배로 보낸다. 회사를 대표한다는 성의의 마음을 선물에 담는다.
 - 선물은 방문할 회사 동네에서 사지 말자. 근처에서 구입했다가 상표를 알면 기분이 상할수 있다.
 - 병문 때 보내지 말아야 할 꽃으로 화분(「根つく」=「寝つく」를 연상), シクラメン (시크라멘) (死·땀을 연상), 동백꽃(꽃이 떨어지는 모양이 불길을 연상), 큰 꽃(놓기 곤란함)이 있다.
- 금지 선물: 칼은 그 동안의 관계에 단절을 의미한다.
 - 짝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선물로 주지 않는다. 꽃도 짝수 개는 금물이다.
- 오랫동안 사귀는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 : 「お中元」 「お歳暮」
 - 1년에 두 번(연말연시 인사 제외)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한다. 보내는 타이밍은 「お中元」이 6월 하순부터 7월 15일 경까지, 「お歳暮」는 12월초부터 12월20일 경까지.
 - 이 종류의 선물은 그 한 해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선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물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.
 - 거래처에게는 상품권이나 계절 상품(여름에는 맥주 등)이 좋다. 작년보다 싼 물건이나 기한이 짧은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. 매년 같은 것을 보내도 괜찮다.
 - 금액은 5천엔~7천엔 정도가 좋다.
 - 상대방이 상 중일 때는 49일 지나서 보낸다. 이 때 송장에 위로의 말을 적도록 한다.